

못내 기뻐하신 사연

몇해전 경애하는 **김정은**동지께서 어느한 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.

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작업장마다에 주련이 늘어선 현대적인 설비들이 이미 있던 설비들을 개조한것이며 그가운데는 수십년간 사용한것도 있다는데 새 설비와 함께 낡은 설비도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새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참가시키고있는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. 그러시고는 공장의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, 전투기술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고있는 영예군인들의 애국심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.